

동해서 서핑, 서해 일몰 감상...청정관광지 뜬다

양양, 서핑 성지로 인기...SNS 타고 MZ세대 어필
을왕리, 카페·섬 트레킹 등 다양한 관광요소
밀집공간 기피로 에버랜드·롯데월드 인기 하락

‘그들은 왜 양양과 을왕리를 찾았을까.’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여가생활의 중요한 테마였던 여행도 마찬가지다. 해외여행은 아직도 엄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여행 지형도 크게 변했다.

한국관광공사가 17일 오픈한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여행지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역방문자수는 2019년에 비해 평균 18% 감소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몇몇 곳은 오히려 방문자가 늘어나는 이례적인 인기를 보였다.

●국내 서핑의 성지, 양양 서피비치

지난해 방문객이 늘어난 지역을 보면 강원도 양양군, 인천 옹진군, 밀양시, 전남 고흥군, 부산 기장군 등 코로 나19와 관련해 청정관광지로 인식되는 곳들이다. 특히 양양군은 2019년 대비 10%나 방문객이 늘어났다.

양양의 인기는 이곳의 시그니처 테마가 된 서핑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 미국의 청년문화를 상징하는 서핑은 해외에서나 가능한 레저스포츠로 여겨졌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제주, 부산 등에서 조금씩 즐기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동해의 양양이 죽도 해변을 중심으로 국내 서핑의 ‘성지’로 떠올랐다.

특히 새로운 놀거리나 유행에 민감한 MZ세대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트레킹 명소로 유명한 소무의도는 무의도와 다리로 연결되어 걸어갈 수 있다(왼쪽). 인근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는 드라이빙 트랙 시승과 아이들을 위한 키즈 스쿨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에게 양양은 각종 SNS채널을 통해 이국적 분위기를 즐기는 ‘힙(hip)한’ 공간의 대명사가 됐다.

여름 성수기를 넘어 사계절 내내 양양을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자 아예 서핑 전용해변까지 생겼다.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북쪽으로 800m 떨어진 ‘서피비치’는 1km 길이의 서핑전용 프라이빗 비치다. 서핑 외에 빈백존, 해먹존 등 색다른 휴식공간과 보헤미안 풍의 펌, 라운지 등이 있어 마치 미국 LA 베니스비치나 호주 골드코스트 해변을 온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매력이다. 양양 서피비치는 이처럼 동해안의 새로운 매력을 창출한 점을 인정받아 문화부 선정 ‘2020 한국관광의 별’로도 선정됐다.

●다양한 관광선택지, 을왕리 해수욕장

관광지 유형별로도 국내여행은 명암이 엇갈렸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내비게이션 데이터 분석을 보면 밀집 또는 실내관광지인 카지노, 테마파크, 경마장, 과학관 등의 검색건수가 줄어, 관광지집 검색에서 늘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트레킹 명소로 유명한 소무의도는 무의도와 다리로 연결되어 걸어갈 수 있다(왼쪽). 인근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는 드라이빙 트랙 시승과 아이들을 위한 키즈 스쿨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1, 2위에 오르던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의 인기가 크게 하락했다.

반면 개방된 야외공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자연관광지인 공원이나 바다의 검색건수는 증가했는데 여의도 한강공원과 을왕리 해수욕장의 인기가 급부상했다.

이중 을왕리 해수욕장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있어 원래 접근성이 강점인 관광명소다. 해안에는 서해 일몰을 감상하는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많고 무의도의 바다누리길, 장봉도 갯길길 등 트레킹 명소를 가진 주변 섬들로 쉽게 갈 수 있다. 인근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는 6가지 코스의 드라이빙 트랙 시승과 아이들을 위한 키즈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도권에서 당일나들이를 할 때 구성원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청정여행지에 더해져 경쟁력 있는 매력요소로 부각됐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위드 코로나 시대에 청정관광지로 떠오른 양양 '서피비치'는 1km 길이의 서핑전용 프라이빗 비치로 서핑 외에 빈백존, 해먹존 등 색다른 휴식공간과 보헤미안풍의 펌, 라운지 등이 있어 매력적이다.

두바이 푸드 페스티벌, 도심 전역서 진행

두바이 관광청은 3월 13일까지 도심 전역에서 두바이 최대 미식 페스티벌인 두바이 푸드 페스티벌(Dubai Food Festival)을 진행한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두바이 푸드 페스티벌은 두바이 행사진흥청(DFR)이 매년 주관하는 행사 중 하나로, 두바이의 다양하고 이색적인 음식문화를 알리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철저한 방역 지침 아래 진행되는 올해 두바이 푸드

페스티벌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가 존재하는 지역의 다국적 요리, 전통 에미라티 음식과 로컬푸드, 이색적인 레스토랑 경험,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요리 등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파인다이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는 두바이 레스토랑 위크, 각종 푸드트럭, 쿠킹클래스, 엔터테인먼트 등이 열리는 메인 허브, 비치 캔틴, 숨은 맛집을 발견할 수 있는 히든 잼스 등이 열린다.

비와이엔블랙야크, GS리테일과 업무협약

비와이엔블랙야크가 국내에서 사용된 페트병으로 친환경 생산, 유통 모델 개발을 하기 위해 GS리테일과 최근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블랙야크의 페트병 자원 순환 시스템이 1만5000여 점포를 보유한 GS리테일의 유통 시스템과 합쳐져 친환경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블랙야크는 기존의 재생 پلی에스터 패션 상품이 수입



비와이엔블랙야크가 GS리테일과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페트병 원료에 의존하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과 협력해 국내 페페트병 재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K2의 화보에서는 수지의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영하이커룩’을 만날 수 있다. K2는 S/S(봄·여름) 컬렉션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와 영하이커들을 위한 영하이킹 아웃도어 제품군을 확대했다. 아노락(모자가 달린 가볍고 짧은 재킷) 스타일의 바람막이 재킷, 등산 레깅스 ‘썬드롬 시리즈’ 등 아웃도어의 기능성에 스타일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여성 모델을 앞세워 화보를 공개하며 봄 기개를 화사하게 켜고 있다. 블랙야크는 산행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아이유 화보(왼쪽)를, K2는 영하이커룩을 선보인 수지의 S/S(봄·여름) 컬렉션 화보를 공개했다.

사진제공 | 블랙야크·K2

봄맞이 스타화보 공개 나선 아웃도어 아이유·전지현·수지 등 여성모델 강세

팬톤이 선정한 노란색 등 화사한 색감의 제품 선택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스타 모델을 앞세운 화보를 앞다퉈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봄맞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 봄에는 여성 모델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블랙야크는 아이유를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하고 MZ세대의 산행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화보를 공개했다. 세계적인 색채기업 팬톤이 올해의 색으로 뽑은 밝은 노란색의 일루미네이팅부터 네온 그린까지 화사한 색감의 바람막이 재킷과 반바지가 일체형으로 들어간 레깅스, 발목까지 오는 양말 등 MZ세대의 ‘산림이룩’을 선보였다.

아이더 화보의 주인공은 브랜드 모델 김우빈, 한소희, 올 봄·여름 시즌 브랜드 테마인 ‘투어링’을 산뜻하게 걷는 듯한 표정과 포즈로 담아냈다. ‘투어링’은 아름다운 국내 자연경관과 관광 명소를 만끽하며 걷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걷기여행 액티비티를 의미한다.

네파는 올 봄에도 8년 째 전속모델로 활동 중인 전지현과 함께 했다. 전지현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다양한 매력에 ‘스타일 유틸리티’라는 콘셉트를 더했다. 화보를 보면 매 컷마다 역동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네파는 새롭게 C-TR 3.0라인을 론칭하면서 브랜드 앰버서더로 라이징 스타 고민시를 선정했다. C-TR 3.0라인은 일상에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아웃도어 팬의족과 이제 막 아웃도어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입문자를 겨냥하고 있다.

K2의 화보에서는 수지의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영하이커룩’을 만날 수 있다. K2는 S/S(봄·여름) 컬렉션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와 영하이커들을 위한 영하이킹 아웃도어 제품군을 확대했다. 아노락(모자가 달린 가볍고 짧은 재킷) 스타일의 바람막이 재킷, 등산 레깅스 ‘썬드롬 시리즈’ 등 아웃도어의 기능성에 스타일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오늘의 날씨				26일(금)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0 14		0 12		-3 13		
강릉	30/30	대전	20/30	전주	20/20		
	3 11		3 15		5 15		
광주	70/20	대구	60/30	부산	80/30		
	6 14		6 13		7 12		
창원	80/30	제주	90/7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6 11		10 12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25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상춘	편집국장 연제호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